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32



Contents

※ 2026.05.28.(목) 기준(대상 기간 : 2026.05.21.~2026.05.27.)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과천시,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1907세대에 인센티브 2362만원 지급 (2026.05.27) 1
- 노원구, 종량천환경센터 증축해 탄소중립체험관 개관 (2026.05.27) 1
- 광주시, 2025년 탄소중립 사업 목표 달성률 94%·온실가스 31만t 감축 (2026.05.25) 2
- 성동구, 2025년 탄소중립 이행점검 결과 '매우 우수' 등급 획득 (2026.05.25) 2
- 구례군, '2026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기본계획 보고회 개최 (2026.05.24) 2
- 영천시, '마른논 써레질' 기술로 농촌 인력난·탄소중립 동시 해결 추진 (2026.05.22) ... 3
- 부산 남구, '도심 속 작은 빛, 탄소중립을 밝히다' 주제로 제22회 반딧불이 축제 개최 (2026.05.22) 3
- 광명시, 청소년 축제 '오월의 난장'에서 탄소중립 캠페인 동시 운영 (2026.05.25) 4

■ AI 분야 4

- 산업부, 성심당 방문해 '제조 AI 국민체감 프로젝트' 현장 확산 간담회 개최 (2026.05.27) 4
- 이재명 대통령, ILO 총장 접견...AI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 현안 논의 (2026.05.22) ... 5
- 칠곡군, 3개 전문기관과 'AI·디지털 생활문제교육' 업무협약 체결 (2026.05.21) 5
- 구미시, AI특화공동훈련센터 개소...휴머노이드·피지컬AI 현장형 인재 양성 착수 (2026.05.21) 6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6

▪ 탄소중립 분야 6

- 한국환경공단, 한강공원에서 '버닝 런' 탄소중립 러닝 캠페인 진행 (2026.05.26) 6
- 서천지속협, 탄소중립 실천 카툰·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16명 발표 (2026.05.27) 7
- 영광교육지원청, 학생연합회와 탄소중립 생태 교육 실천 아이디어 기획 (2026.05.27) · 7
- 충남 서부평생교육원, 환경교육주간 행사 및 탄소중립 환경교실 운영 (2026.05.26) 8

▪ AI 분야 8

- 한전, AI 기반 전력망 운영 혁신으로 연간 약 1100억원 전력구입비 절감 추진 (2026.05.27) 8
- 경찰청, AI로 제작된 5·18 왜곡 가짜 신문 기사 작성자 추적·수사 착수 (2026.05.22) 9
- 한국도로공사, 페루 교통통신부 공무원 대상 AI·BIM 기반 도로관리 연수 실시 (2026.05.21) 9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0

▪ 탄소중립 분야 10

- 함평축협, 메탄 29.2% 저감·증체량 3배 증가 'MRF배합사료' 개발 (2026.05.25) 10

▪ AI 분야 11

- 현대건설, 미국 테라파워·HD현대중공업과 4세대 원전 '나트륨' 상업화 협약 체결 (2026.05.21) 11
- AWS, 한국 피지컬 AI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발표 (2026.05.22) 11

- 인하대, AI·로봇 분야 기업들과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2026.05.27) 12
- 원광디지털대, AI 기반 학습분석시스템 고도화 및 HyperXR 스튜디오 구축
(2026.05.27) 12
- 엔비디아 젠슨 황, 대만 연간 투자 1500억달러로 확대 및 신규 캠퍼스 건설 발표
(2026.05.27) 12
- 샘 올트먼, "AI로 인한 일자리 대재앙 없을 것...초기 예측 빗나갔다" 발언 (2026.05.27) 13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p>☐ 과천시,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1907세대에 인센티브 2362만원 지급 (2026.05.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과천시가 지난해 하반기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한 1907세대에 총 2362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을 27일 발표.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1~2년 평균 대비 5% 이상 절감한 가구가 대상이며, 303세대는 3만원 이상, 6세대는 5만원 초과 수령. - 과천시는 과천자이·푸르지오써밋·위버필드 등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현장 방문 홍보를 강화해 올해 상반기에만 522세대가 신규 가입. 4월 말 기준 전체 가구의 17.3%인 5067세대가 참여 중으로 경기도 내 최고 수준의 참여율 기록. - 과천시는 장기적으로 관내 전체 가구의 20%까지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에너지 비용 절감과 현금성 보상을 동시에 제공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평가.
	<p>☐ 노원구, 중랑천환경센터 증축해 탄소중립체험관 개관 (2026.05.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노원구가 27일 기존 중랑천환경센터를 증축·개편해 '노원구 탄소중립체험관'을 개관.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개관식에 참석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과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콘텐츠 보강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발언. - 체험관은 '다시 생각하기', '다시 푸르게', '다시 짓기', '다시 실천하기' 등 4개 테마로 구성. 기후 위기의식, 숲과 제로에너지 건축 체험, 일상 속 적용 가능한 생활습관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 -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일요일·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 오승록 구청장은 구민과 함께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 표명.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광주시, 2025년 탄소중립 사업 목표 달성률 94%·온실가스 31만t 감축 (2026.05.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가 지난해 탄소중립 사업에 총 5815억원을 투입해 154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평가 대상 133개 사업 중 87개가 목표를 달성하고 38개가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 목표 달성 또는 정상추진 비율은 94% 기록. -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당초 목표(30만1800t CO2eq)를 1만3090t 초과 달성한 총 31만4890t 감축. 이는 수령 30년 소나무 약 3460만 그루의 연간 탄소 흡수량에 해당하며, 제2기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행 성과를 심의·의결. -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한 '기업탄소액션' 사업에서 중소·중견기업 24개사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5559t을 감축하고 배출권 모의거래에 참여하는 성과 도출. 광주시는 최종 결과보고서를 5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 예정.
	<p>□ 성동구, 2025년 탄소중립 이행점검 결과 '매우 우수' 등급 획득 (2026.05.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성동구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감축 대책 74개 과제 중 66%(49개)가 목표를 달성했거나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 202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93.2%인 15만1620t CO2eq 감축 완료. - 미공표 4개 과제까지 반영 시 최종 감축률은 목표 대비 125%를 상회할 전망. '제2차 기후위기 적응대책(2021~2025)' 이행점검에서도 종합 점수 102.3점으로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획득. - 전체 38개 적응대책 사업 중 36개가 '매우 우수', 2개가 '우수' 평가를 수령. 구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속 가능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 표명.
	<p>□ 구례군, '2026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기본계획 보고회 개최 (2026.05.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구례군이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기본계획 보고회'를 개최해 행사 추진 방향, 프로그램 구성, 운영 전략, 홍보 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 공유 및 의견 수렴 실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미래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전시·홍보관·기업관 운영과 체험 프로그램, 지역 농특산물 홍보·판매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교육적 가치 제공 계획. - 오수미 부군수는 박람회와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발언. 구례군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 프로그램은 향후 확정 예정.
	<p>□ 영천시, '마른논 씨레질' 기술로 농촌 인력난·탄소중립 동시 해결 추진 (2026.05.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천시가 21일 고경면 용전리 일원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공동으로 '벼 마른논 씨레질 직파·이앙 현장 연시회'를 개최. 마른논 씨레질은 논에 물을 채우지 않고 마른 상태에서 작업하는 저탄소 친환경 재배기술로 농번기 노동력 분산 가능. - 기술 도입 시 작업기간 5일 단축, 부유물 98%·총인 배출 88% 감소 등 환경 개선 효과 확인. 로터리 작업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여 농기계 에너지 사용량 17.7% 절감, 1ha당 5만1333원의 경영비 절감 효과 기대. - 최정애 영천시장 권한대행과 김병석 국립식량과학원장이 직접 이앙기 탑승 시연을 선보였으며, 드론 활용 담수직파 시연도 진행.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기반 강화 방침 발표
	<p>□ 부산 남구, '도심 속 작은 빛, 탄소중립을 밝히다' 주제로 제22회 반딧불이 축제 개최 (2026.05.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남구가 6월 4~6일 이기대 큰고개쉼터에서 반딧불이 탐방 행사를 운영하고, 7일 평화공원에서 '제22회 부산 남구 반딧불이 축제'를 개최 예정. 올해 주제는 '도심 속 작은 빛, 탄소중립을 밝히다'로 공존과 미래의 메시지 전달. - 축제 당일 오후 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코스프레 공연, '반디 드림 스테이지', 해산물 마술쇼 등 무대 프로그램과 친환경 만들기 체험, 글짓기·그림대회, 빛의 용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사 미션 체험 등 가족 단위 프로그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딧불이 탐방은 6월 4·5일 각 1회, 6일 탐방 2회·투어 2회로 운영되며 사전 예약제 적용. 참가자는 이기대 자연환경에서 반딧불이를 가까이 관찰하며 도심 속 생태 체험 가능.
	<p>□ 광명시, 청소년 축제 '오월의 난장'에서 탄소중립 캠페인 동시 운영 (2026.05.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명시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축제추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6 오월의 난장'이 23일 광명시청소년수련관·한내천·소하상업지구 일대에서 개최. 기획부터 운영까지 청소년이 직접 참여한 점이 특징이며 39개 체험부스 운영. - 축제 곳곳에서 다회용기 사용, 탄소중립 캠페인·환경 체험부스 참여, 종이 없는 축제 운영 등 친환경 실천 활동 진행. 소하상업지구상가번영회 소속 36개 상점도 먹거리존 운영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 -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은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지속가능한 축제라며 청소년의 지역 내 성장 기회 확대를 약속. 청소년축제추진위원회 학생은 탄소중립 실천까지 가능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 전달.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산업부, 성심당 방문해 '제조 AI 국민체감 프로젝트' 현장 확산 간담회 개최 (2026.05.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성심당 롯데백화점 대전점을 방문해 AI·로봇 기반 튀김소보로 생산 공정을 점검하고 '국민체감 제조 AI 현장 확산 간담회'를 개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제조업 AI 전환(M.AX) 얼라이언스 국민체감 프로젝트'의 대표 사례 공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중앙부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심당은 반죽 투입부터 빵 뒤집기, 불량 판정, 완제품 포장까지 전 공정에 AI 비전 기술과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 산업부는 생산성 약 20% 향상과 고온 반복 작업 부담 경감 기대. 안동 회곡양조장 발효 공정, 장충동왕족발보쌈 불량육 선별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프로젝트도 병행. - 산업부는 기존 반도체·조선 등 주력 제조업 중심의 제조 AI 정책을 식품·물류·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하는 구상 발표. 지난해까지 AI팩토리 누적 102개를 보급했으며 올해 신규 100개를 추가 구축하고, AI로봇 실증 예산을 확대할 계획. <p>□ 이재명 대통령, ILO 총장 접견...AI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 현안 논의 (2026.05.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접견.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과 AI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계 반발, 반도체 기업 영업이익에 대한 노조의 성과급 배분 요구 등 국내 노동 현안을 두루 논의. - 청와대는 AI 기술 발전으로 노동시장과 산업구조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노동을 존중하는 정부 노동정책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발표. 향후 정책 방향과 한국-ILO 간 협업 방안도 논의 계획. - 접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동석. AI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노동 존중 기조와 미래 노동시장 대응 방향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
<p style="text-align: center;">지자체</p>	<p>□ 칠곡군, 3개 전문기관과 'AI·디지털 생활문해교육' 업무협약 체결 (2026.05.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곡군이 18일 교육문화회관 평생학습관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경북과학대학교,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와 'AI·디지털 생활문해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 전환에 대응해 기초 문해교육의 범위를 확장하는 취지. - 키오스크·스마트폰 활용 등 'AI·디지털 문해', 고령층 맞춤형 '교통안전 문해', 화장품 사용법 등 '생활과학 문해'를 아우르는 실생활 밀착형 교육 전개 방침. 교육 콘텐츠·인적 네트워크 협력,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공간·시설 공동 이용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등 다양한 협력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읍·면 마을회관과 경로당 8개소를 선정해 6월 10일부터 8월 26일까지 어르신과 주민 120여 명 대상 '찾아가는 AI·디지털 생활문해교육' 본격 운영 예정.
	<p>□ 구미시, AI특화공동훈련센터 개소...휴머노이드·피지컬AI 현장형 인재 양성 착수 (2026.05.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시가 21일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로봇직업혁신센터 1층에서 'AI특화공동훈련센터 개소식'을 개최. 지역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상북도,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 참석. 대경권 AI 특화 훈련기관으로 국내 최대 규모 로봇 훈련시설 내 조성. - 2026~2028년 3년간 총 15억원 전액 국비로 운영되며, 휴머노이드 로봇·피지컬AI·생성형AI 기반 제조기술 중심의 현장형 교육과 기업 맞춤형 AX 훈련 추진. 연간 10건 이상 현장 적용형 PBL 훈련 개발, 360명 이상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목표. - 구미시는 반도체·방산·2차전지 등 주력산업과 AI·로봇 기술을 결합한 제조혁신 전략을 추진 중이며,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유치 활동과 AI 팩토리 사업 연계를 통해 산업생태계 전환에 속도를 낼 방침.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한국환경공단, 한강공원에서 '버닝 런' 탄소중립 러닝 캠페인 진행 (2026.05.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환경공단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버닝 런(Burning Run)' 대회에 임직원과 가족 약 150명이 참여해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실시. '차를 멈춘 거리만큼 친환경 가치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기획.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들은 5km·10km 코스를 달리며 탄소중립 실천 메시지를 전달했고, 현장에 서는 시민 참여형 홍보부스도 운영. 방문객은 SNS 구독 인증과 탄소중립 퀴즈 이벤트 참여 후 업사이클링 친환경 기념품 수령. - 행사장에는 '나는 탄소중립 지킴이' 문구의 포토월도 설치.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일상 속 저탄소 활동이 시민에게 탄소중립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
지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천지속협, 탄소중립 실천 카툰·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16명 발표 (2026.05.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대표 신상애)가 주최하고 서천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한 '2026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카툰·포스터 공모전' 최종 입상자 발표. 지역 초등학교 대상으로 진행되어 총 16명의 학생 수상. - 대상(교육장상)은 '에너지 절약으로 미래와 약속해요'를 출품한 서천초 6학년 유지운 학생이 수상. 최우수상 강민주(시초초)·임채원(비인초)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유머·풍자 특별상 5명 선정. - 시상식은 6월 4일 오후 3시 서천지속협 교육실에서 개최 예정이며 상장과 서천사랑상품권 지급. 수상작은 서천군청 로비 등 공공장소에서 순회 전시를 통해 군민과 탄소중립 필요성 공유 계획. □ 영광교육지원청, 학생연합회와 탄소중립 생태 교육 실천 아이디어 기획 (2026.05.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광교육지원청이 청사 세미나실에서 지역 초·중·고 학생 대표로 구성된 영광학생연합회와 함께 기후위기 극복 및 생태 감수성 함양을 위한 실천 아이디어 기획 활동 진행. 학생 14명과 지도교사 등 20여명 참여. - 학생들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제철이를 찾아라'와 기후위기·에너지 대전환 영상을 시청한 뒤, 모둠별 토의를 통해 '학교 생태주간' 운영 방안 기획 및 환경 보호 메시지 담은 캠페인용 스티커 제작 아이디어 도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병국 교육장은 학생들이 환경 문제를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실천 방안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 교육지원청은 학생 자치 역량과 연계한 탄소중립 환경 교육의 지속적 확대 방침 표명.
	<p>□ 충남 서부평생교육원, 환경교육주간 행사 및 탄소중립 환경교실 운영 (2026.05.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교육청 서부평생교육원이 6월 2~5일 지역주민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제5회 환경교육주간 행사'를 운영. 탄소중립·에너지 절약 홍보, 텀블러 사용 인증, 환경정화 줍기 챌린지, 그린 챌린지 등 4종 참여형 프로그램 구성. - 환경주간 기간 인증샷 2종 제출 참여자에게 선착순 음료 쿠폰을 제공하여 자발적 참여 유도. 관내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탄소중립 환경교실'에서는 아트 업사이클링 체험을 통해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의 중요성 교육. - 조권호 원장은 학생과 주민이 일상 속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 서부평생교육원은 독서와 환경교육을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교육 현장에 새로운 활력 제공이라는 평가 수렴.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한전, AI 기반 전력망 운영 혁신으로 연간 약 1100억원 전력구입비 절감 추진 (2026.05.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력이 AI 기반 전력망 운영 혁신을 통해 연간 약 1100억원 규모의 전력구입비 절감에 나선다고 27일 발표. 기존 159개 지역 데이터에 의존하던 수요 분석 모델을 전국 9만5000개 실제 데이터를 AI 빅데이터 방식으로 분석하는 신규 모델로 전면 개편. - 동해안·호남 지역 저비용 발전기(원전·석탄)의 발전량 조정 부담 대폭 경감으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연간 약 600억원 절감 기대. 신태백·신양양 변전소의 유연송전설비(STATCOM) 운영 최적화를 통해 동해안 저가 전력의 수도권 송전 확대에 추가 연간 약 500억원 절감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동철 한전 사장은 AI를 활용한 전력망 운영 혁신이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기 공급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전력망 운영 효율 극대화와 국민 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
	<p>□ 경찰청, AI로 제작된 5·18 왜곡 가짜 신문 기사 작성자 추적·수사 착수 (2026.05.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2일 온라인 SNS에서 유포되는 AI 생성 5·18 민주화운동 왜곡 가짜 신문 기사 작성자를 추적·수사 중이라고 발표. '5·18은 폭동'이라는 다수의 게시글도 수사 대상에 포함. - 해당 가짜 기사는 광주일보 제호를 도용하고 1980년 5월 20일 발행 날짜를 교묘하게 합성한 것으로, '간첩 잔당, 폭도들과 합세해 평화로운 광주를 피로 물들여'라는 허위 부제를 포함. AI를 이용해 생성한 것으로 추정. - 경찰청은 SNS 등을 통해 확산하는 5·18 관련 허위사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수사하고 삭제·차단 요청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
	<p>□ 한국도로공사, 페루 교통통신부 공무원 대상 AI·BIM 기반 도로관리 연수 실시 (2026.05.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도로공사가 30일까지 KOICA 연수센터에서 페루 교통통신부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도로 운영 및 유지관리 역량 강화' 연수 진행.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운영·유지관리 경험 공유 목적. - 올해 과정은 AI 인프라 수출 확대 기조에 맞춰 한국의 도로교통 정책, AI·건설 정보 모델링(BIM)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 고속도로 AI 적용 기술 등을 중심으로 구성. 지난해부터 매년 페루 공무원을 초청하여 관련 연수 시행.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도로공사의 첨단 도로 운영·유지관리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국제 협력 사례로, AI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의 해외 확산에 기여할 전망.
지방기관	- 해당 없음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함평축협, 메탄 29.2% 저감·증체량 3배 증가 'MRF배합사료' 개발 (2026.05.25)</p> <p>- 함평축산농협이 국립순천대학교와 6개월간 한우 12두 3반복 교차 실증 실험을 거쳐 메탄저감률 29.2%를 달성한 'MRF(Methane-Reduction Feed)배합사료'를 개발. 기존 TMR 사료의 메탄 저감률(12.56%)을 16.64%p 상회하며, 증체량도 일반 사료 대비 3배 이상 우수.</p> <p>- 동함평산단 소재 MRF배합사료공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 276억원을 투자해 2025년 5월 완공. 일 200t 생산 능력과 미생물 발효시설을 갖추었으며 농업부산물 재가공·발효를 통한 친환경 원료 사용.</p> <p>- 함평축협은 정부 저메탄 사료 공식 인증 신청 중이며, 해양수산부 주관 170억원 규모 '바다고리풀 사료 첨가제 개발' 국책사업의 총괄 주관기관으로도 선정. 인증 완료 시 MRF베이스 사료를 전국 공급해 함평을 'K-기후 사료'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p>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현대건설, 미국 테라파워·HD현대중공업과 4세대 원전 '나트륨' 상업화 협약 체결 (2026.05.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건설이 19일 미국 뉴욕 골드만삭스 본사에서 테라파워, HD현대중공업과 차세대 원자로 '나트륨(Natrium)' 상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액체 소듐 냉각재 기반 4세대 원전 기술로 기존 3세대 대비 안전성·경제성·발전 효율 향상이 강점. - AI 산업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 대규모 전력 공급이 가능한 차세대 원전 기술이 대안으로 부상. 테라파워는 빌 게이츠가 설립한 미국 대표 원전 기업으로 메타(Meta)와도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AI 시대 핵심 발전원 공급 기업으로 성장. - 테라파워는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345MW 규모 '케머러 1호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2035년까지 전 세계 10기 이상 원전 공급 목표 제시. 현대건설은 UAE 바라카 원전 등 글로벌 원전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원전 EPC 시장 진출 기반 강화 전략.
	<p>☐ AWS, 한국 피지컬 AI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발표 (2026.05.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존웹서비스(AWS)가 20일 코엑스에서 열린 'AWS 서밋 서울 2026' 기조연설에서 한국 피지컬 AI 생태계의 글로벌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 함기호 AWS 코리아 대표는 한국이 AI 칩 설계·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제조 분야에서 피지컬 AI 개발이 가능한 역동적 생태계를 보유했다고 평가. - '피지컬 AI 프론티어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 학습, 시뮬레이션, 엣지 추론까지 전 과정에 AWS 기술 전담팀 투입. HD현대로보틱스·두산 등 대기업부터 컨피그·리얼월드 등 스타트업까지 인프라 제공 확대 중. - AWS는 2018~2031년 한국에 12조원 이상 투자 계획을 밝혀 단일 외국 기업 그린 필드 투자 역대 최대 규모. 핵심 방법론으로 'AI 기반 개발 라이프사이클(AI-DLC)'을 제시하며 코딩 보조를 넘어 개발 방식 자체를 재설계하는 비전 발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대학교</p>	<p>□ 인하대, AI·로봇 분야 기업들과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2026.05.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하대가 AI·로봇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타엠·브틸스·애니모션텍 등 첨단기술 기업들과 일학습병행 특화대학사업 추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발표. 학생들의 산업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현장실습과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합의. - 메타엠은 AI 기반 고객응대 시스템과 생성형 AI 챗봇 기술을 운영하는 기업이며, 브틸스는 로봇 플랫폼과 모듈화 기술 기반 산업 자동화 솔루션을, 애니모션텍은 초정밀 모션제어 기술과 레이저 미세 가공 장비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 -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첨단 산업 분야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산학협력 확대를 통한 미래 산업 전문인재 양성 의지 표명. <p>□ 원광디지털대, AI 기반 학습분석시스템 고도화 및 HyperXR 스튜디오 구축 (2026.05.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광디지털대학교가 실무형 교육과 AI 기반 교육혁신을 앞세워 미래형 원격교육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웰빙건강·한국문화·실용복지 분야 특성화 교육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 2002년 개교 이래 약 2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 - 교육부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사업'을 통해 AI 기반 학습분석시스템을 고도화 하여 개인 맞춤형 학습 경로를 추천하고 학습 몰입도·성취도를 체계적으로 관리. 사이버대학 최초로 'HyperXR 스튜디오'를 구축해 360도 실감형 콘텐츠 교육 환경 마련. - 교육부 '2주기 원격대학 기관평가인증'에서 전 영역 '충족' 판정을 획득. 재학생 재등록률 90%, 재학생·동문 추천 입학 비율 절반 이상 등 높은 만족도 유지. 올해 신설한 산업안전보건학과 등 변화하는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확대.
<p>해외</p>	<p>□ 엔비디아 젠슨 황, 대만 연간 투자 1500억달러로 확대 및 신규 캠퍼스 건설 발표 (2026.05.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27일 대만 타이베이 행사에서 현재 연간 1000억달러인 대만 투자를 1500억달러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 4~5년 전 연간 100억~150억달러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p>수준이던 투자가 AI 산업 성장과 함께 급증한 추세. 올해 말부터 북부 타이베이에 4000명 수용 가능한 신규 캠퍼스 '컨스텔레이션' 건설 착수, 2030년 완공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이번 발표를 AI 공급망 확대 신호로 평가. 대만 자취안지수(Taiex)는 1.7%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TSMC 1.3%, 미디어텍 8.8%, 델타전자 7.2% 급등. 엔비디아가 올해 안에 애플을 제치고 TSMC 최대 고객이 될 가능성도 제기. - 엔비디아의 대만 투자 확대는 중국 시장 규제 강화 속에서 진행. 최근 분기 대만 매출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반면 중국 본토·홍콩 매출은 절반으로 감소. 쟈슨 황은 “대만은 AI 혁명의 중심”이라며 '물리적 AI'가 제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 <p>□ 샘 올트먼, "AI로 인한 일자리 대재앙 없을 것...초기 예측 빛나갔다" 발언 (2026.05.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26일 호주 코먼웰스 은행(CBA) 콘퍼런스에 화상 참여하여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대재앙'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 2022년 챗GPT 출시 당시 기술적 예측은 대체로 정확했으나 사회적·경제적 영향 분석은 미흡했다고 자체 평가. - 올트먼은 “신입 사무직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직관이 틀렸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발언. 다만 해당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부연. - HSBC·아마존·스탠다드차타드·CBA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일부 직무를 AI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고용 시장 변화는 현재진행형. 올트먼은 인간 간 상호작용과 소통이라는 AI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적 영역'이 존재한다고 강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